



오늘의 주요기사

2022 11 18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江原日報	03		“		”				1
강원도민일보	20								1
에너지경제					,			...	2
news 1					,			...	3
江原日報	27		“ 4		가 ‘			’ 가	... 4
강원도민일보	20				.			...	5
江原日報					,			[1/2]	6
江原日報					,			[2/2]	7
강원도민일보	03			"	.			...	8
江原日報	02		2						9
강원도민일보	03								9
江原日報	07			"	.	.		"	10
강원도민일보	06			"		,		...	11
강원도민일보	20					"		...	12
강원도민일보	02		"ESG 가					"	13
강원도민일보	06				ESG				14
江原日報	24		[The]				‘	’ 가	..15
강원도민일보	03				가				16
江原日報	02					9			17
江原日報	01					... 1			18
江原日報	02					道-			19
江原日報	03				’	SOC	’	...	20
江原日報	03		“ 2024			.		”	21
강원도민일보	03			"				"	... 22
江原日報	25		[]				,	...	23
강원도민일보	19		[]						24
강원도민일보	19		[]						25

江原日報

2022 11 18 ()
03

권혁열 도의장 “아동 향한 폭력 근절” 캠페인 동참



◇권혁열 도의장은 17일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시작은 아동폭력 근절”이라며 END Violence 캠페인에 동참했다.

권혁열 강원도의회장이 17일 아동 폭력 근절을 위한 ‘엔드 바이올런스 (END Violence)’ 캠페인에 동참했다. 국제구호단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외교부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캠페인은 아동폭력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고 아동·청소년을 향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 중이다.

권혁열 의장은 다음 참여자로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과 허인구 G1 사장 등 언론사 대표들을 추천했다.

이하늘기자 2sky@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2 11 18 ()
20



권혁열 도의회 의장 아동폭력 근절 캠페인 동참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이 최근 아동폭력 근절을 위한 ‘END Violence’ 캠페인에 동참, 다음주자로 김종석 강원도민일보 회장 등을 지목했다. 사진제공=강원도의회

2022 11 18 ()

에너지경제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아동 폭력 근절 캠페인 동참

박에스더 ess003@ekn.kr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은 지난 15일 아동폭력 근절을 위한 'END Violence' 캠페인에 동참했다.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은 지난 15일 아동폭력 근절을 위한 'END Violence' 캠페인에 동참했다.

아동폭력 근절 캠페인은 아동과 청소년을 향한 물리적·정신적 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 외교부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세계적인 인식개선 활동이다.

이번 캠페인은 '폭력을 멈추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관심입니다(Take action, stop violence)'라는 슬로건 아래 단 한 명의 아이들도 빠짐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은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첫 시작은 아동폭력 근절"이라 강조하며 "아이들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차별받지 않고,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따뜻한 강원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ss003@ekn.kr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아동폭력 근절 캠페인 동참



아동폭력 근절 캠페인에 동참한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강원도의회 제공)/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이 아동폭력 근절을 위한 캠페인에 동참했다.

국제구호단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외교부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캠페인은 아동폭력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고, 아동·청소년을 향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 중이다.

캠페인은 ‘폭력을 멈추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관심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단 한명의 아이들도 빠짐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달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권 의장은 캠페인의 후속 주자로 김종석 강원도민일보 회장과 허인구 G1 사장,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을 추천했다.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은 “아이들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차별받지 않고,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따뜻한 강원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4만 새마을가족 ‘강원특별자치시대’ 열어가는데 앞장”

도새마을지도자대회 열려... 유공자 포상 수여식

2022년 강원도새마을지도자 대회가 17일 정선 아리랑 센터에서 도내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 등 회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강원특별자치시대에 앞장 서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날 대회에는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비롯한 권혁열 도의장, 최승준 정선군수와 심재국 평창군수, 심현정 평창군 의장과 전영기 정선군의장, 박대훈 새마을운동중앙회장, 박형배 도새마을회장, 전미용 도새마을부녀회장, 최양진 정선군새마을회장, 김학순 정선군새마을부녀회장 등 기관·단체장이 함께했다.

새마을지도자들은 2023 강원새마을운동 실천 다짐 결의문을 채택하고 ‘새로운 강원도, 특별자치시대’의 강원시대를 여는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 세대와 지역을 뛰어넘는 상생과 통합, 소외된 이웃에 돌봄과 나눔 실천으로 함께 사는 따뜻한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

박대훈 중앙회장은 “이제 새마을운동은 지구촌 공동 번영을 중점 추진하고 세대 간 소통을 위해 MZ세대와 함께하며 더 활력 넘치도록 질적 변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2022년 강원도새마을지도자대회(회장:박형배)가 17일 정선 아리랑 센터에서 열렸다.

김진태 지사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상을 받은 모든 수상자에게 축하와 감사를 드린다”며 “도내 4만 새마을가족은 강원도를 지탱하는 중심점인 만큼 강원특별자치

시대를 완성하는 데 힘이 돼 달라”고 말했다.

박형배 회장은 “새롭게 변화하는 우리 사회에서 요구되는 시대정신을 더해, 함께 잘 사는 공동체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이번 대회를 통해 새마을운동이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한층 더 발전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유공자 포상에는 박형배 회장 및 조경하 새마을지도자 철원군협의회장, 김학순 정선군새마을부녀회장이 새마을훈장을 수여받았다. 또 엄재근 새마을지도자 원주시협의회장, 최석우 새마을지도자 원주시 소초면협의회장, 김옥자 동해시새마을부녀회장, 이영철 속초시새마을회장, 이옥섭 철원읍새마을부녀회장, 김경이 화천군새마을부녀회장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정선=김영석기자 kim711125@

강원도민일보

2022 11 18 ()
20

특별자치도 시대 친환경문화·공동체 실현 앞장 다짐

정선서 도새마을지도자대회
박형배 회장 등 유공자 포상
올해 성과 보고 등 결의문 채택

도새마을회(회장 박형배)는 17일 정선아리랑센터에서 '2022강원도 새마을지도자대회'를 열고 '새로운 강원도, 특별자치시대'의 강원시대를 활짝 열어가는데 적극 앞장 설 것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코로나19로 3년만에 열린 이날 대회는 김진태 도지사, 권혁열 도의회의장, 광대훈 새마을운동중앙회장, 박형배 도새마을회장, 최승준 정선군수, 심재국 평창군수, 전영기 정선군의장, 이건설 도노인회장, 전금순 도여성단체협의회장을 비롯한 18개 시·군 새마을회



2022강원도새마을지도자대회가 17일 정선아리랑센터에서 도내 18개 시군 새마을가족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장과 지도자, 가족 등 1000여명이 참가했다. 대회는 2022년 새마을운동 성과 영상 보고, 유공자 포상,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박형배 도새마을회장·조경하 새마을지도자 철원군협의회장·김학순 정선군새마을부녀회장은 새마을훈장을, 엄재근 새마을지도

자 원주시협의회장·최석우 새마을지도자 원주시 소초면협의회장·김옥자 동해시 새마을부녀회장·이영철 속초시 새마을회장·이옥섭 철원군 철원읍 새마을부녀회장·김경이 화천군 새마을부녀회장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김진태 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새마

을운동은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으로 국민통합에 이바지하며 대한민국의 초석을 만들었다"며 "강원특별자치시대를 완성하는데 새마을 가족 모두가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광대훈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은 "새마을운동은 담대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며 "친환경문화 조성, 공동체 정신 회복 등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박형배 도새마을회장은 "새마을운동은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원동력이자 자부심"이라며 "함께 잘사는 공동체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대한민국 최초의 산림형 국가정원이 정선 가리왕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새마을 가족 모두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달라"고 말했다.

유주현 joohyun@kado.net

江原日報

새로운 강원도, 강원특별자치시대 활짝 연다

17일 정선서 강원도 새마을지도자대회
강원 새마을운동 실천 다짐 결의문 채택



2022년 강원도 새마을지도자 대회가 17일 정선 아리랑센터에서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 등 회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22년 강원도 새마을지도자 대회가 17일 정선 아리랑센터에서 도내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 부녀회 등 회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강원특별자치시대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날 대회에는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비롯한 권혁열 도의장, 최승준 정선군수와 심재국 평창군수, 심현정 평창군의장과 전영기 정선군의장, 곽대훈 새마을운동 중앙회장, 박형배 도 새마을회장, 전미용 도 새마을부녀회장, 최양진 정선군새마을회장, 김학순 정선군새마을부녀회장 등 기관단체장이 함께 했다.

새마을지도자들은 2023 강원새마을운동 실천 다짐 결의문을 채택하고 '새로운 강원도, 특별자치시대 의 강원시대를 여는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 세대와 지역을 뛰어넘는 상생과 통합, 소외된 이웃에 돌봄과 나눔 실천, 미래를 향한 도전과 혁신으로 함께 사는 따뜻한 나라를 만드는데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

곽대훈 새마을운동 중앙회장은 국가 안팎의 여건은 새마을운동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며 이제 새마을운동은 지구촌 공동번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세대간 공감과 소통을 위해 MZ세대와 함께하는 새마을운동을 활성화 해 더 젊고 활력 넘치도록 질적 변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2022 11 18 ()

江原日報



2022년 강원도 새마을지도자 대회가 17일 정선 아리랑센터에서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 등 회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진태 도지사는 새마을운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영예로운 상을 받은 모든 수상자들에게 축하와 감사를 드린다며 도내 4만 새마을가족은 강원도를 지탱하는 구심점인 만큼 강원특별자치시대를 완성하는데 힘이 되어 달라 고 말했다.

박형배 강원도새마을회장은 새롭게 변화하는 우리 사회에서 요구되는 시대정신을 더해, 함께 잘사는 공동체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이번 대회를 통해 새마을운동이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한층 더 발전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이날 새마을운동 유공자 포상에는 박형배 강원도새마을회장 및 조경하 새마을지도자 철원군 협의회장, 김학순 정선군새마을부녀회장이 새마을훈장을 수여 받았다.

또 엄재근 새마을지도자 원주시협의회장, 최석우 새마을지도자 원주시 소초면협의회장, 김옥자 동해시 새마을부녀회장, 이영철 속초시 새마을회장, 이옥섭 철원군 철원읍 새마을부녀회장, 김경이 화천군 새마을부녀회장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2022 11 18 ()
03

강원도민일보

도의회 “다문화·이주여성 살피는 강원형 자치경찰로”

도자치경찰위 내년 예산안 심의
아동안전지킴이 등 41억원 삭감
“노인회 주관 사업 예산 중복돼”

강원도의회가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에 다문화가정 아동, 이주여성 등을 살피는 ‘강원형 자치경찰’의 역할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박기영)는 17일 2차 회의를 열고 2023년도 자치경찰위 예산안을 심의했다.

이지영(비례)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 2023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가정 폭력·아동학대 근절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다문화가정이 늘고 있고, 이주여성도 많다. 이분들에 대한 가정 폭력 사례가 많다”며 “의사소통이 잘 안 되면 면밀히 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통역지원 등 강원도형 자치경찰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안전위는 아동안전지킴이 예산 37억여원, 무인단속장비 구매 및 운영비 22억5600여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41억9837만원을 감액했다.

지광천 부위원장은 “이 사업은 대한노인회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노인회가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다”며 “중복이다. 우선 삭감을 하자고 이야기했다”고



이지영

박관희

이무철

아동안전지킴이 사업 전액 삭감 사유를 밝혔다. 또, 안전위는 ‘강원도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했다.

박관희(춘천) 의원은 대변인실 2023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2023년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이고, 세계산림엑스포,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등 큰 이슈가 많다”며 “대변인실 입장에서 보조업무도 해야 하고, 도의

이미지를 위해 관여할텐데, 건축예산으로 뺏겨서 짜여지면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용균 도대변인은 “고비용 해외 매체 광고는 과감하게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무철(춘천) 의원은 의회사무처 2회 추경 예산안 심의에서 “법인카드 이자수입, 유류조달 적립카드환급금, 의원배지 수익 등 세외수입은 따로 잡지 않은 이유가 있느냐”며 “다시 한 번 판단을 해달라. 다른 국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공공이자수입 등 세입처리를 했다”고 했다. 최정집 의회사무처장은 “포인트 반환은 연말에 이뤄져 세출기한 내에 받지 못해 미수금으로 처리됐다”고 했다.

이설화

江原日報

2022 11 18 ()
02



제2회 추경안 심의 강원도의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심영곤)는 17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15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갖고 의회 사무처에 대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박관희(국민의힘·춘천)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박승선기자

강원도민일보

2022 11 18 ()
03



도의회 운영위 추경 심의 강원도의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심영곤)는 17일 도의회 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진행한 가운데 엄윤순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서영

江原日報

2022 11 18 ()
07

“강원 건축의 과거·현재·미래를 한눈에”

강원건축문화제 개막

시·군 건축사회 200여명 참석
3년 만에 완전 대면방식 치러
20일까지 강연·출품작 전시

강원 건축의 과거·현재·미래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2022 강원건축문화제’가 17일 춘천시청 대회의실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한 이번 문화제는 ‘THE 곳, 강원! 그곳에 가면’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3년 만에 완전 대면방식으로 이뤄지는 행사인 만큼, 강원도의 문을 활짝 열고 손님을 맞이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날 개막식에는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 박기영 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 손창환 도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내빈 20여명과 도내 시·군 건축사회 회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성악가 오성룡, 오동규씨의 축하공연으로 시작을 알린 개막식은 공모전 시상식, 테이프 커팅식, 전시회 순회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전영석 강원도건축사회장은 개회사에서 “2022 강원건축문화제는 강원특별자치도 시대를 여는 대전환의 시기와 때를 같이해 그 의미가 특별



◇2022 강원건축문화제 커팅식 및 개막식이 17일 춘천시청에서 전영석 강원도건축사회장,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 박기영 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 손창환 도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내빈과 건축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신세희기자

하다”며 “강원 건축의 패러다임도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강원건축문화 진흥을 위해 건축사들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축사를 맡은 손창환 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문화제에 출품된 작품들이 문화적 유산이 되고 강원도의 랜드마크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도민들의 건축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강원건축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기영 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은 “앞으로 건축 분야가 대한민국의 큰 축을 담당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강원건축문화제를 통해 세계인이 주목하는 아름다운 강원건축문화가 만들어지는 발판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축하했다.

개막식 직후에는 특별 프로그램인 건축강연회가 진행됐다. 정환목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건축사가 알

아야 할 현장 구조역학의 원리 및 상식’을 주제로 강연을 펼쳐 도내 건축사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이번 문화제는 17일부터 20일까지 나흘간 이어진다. 행사 기간 춘천시청 1층 문화전시실에서는 강원건축문화상 출품작, 건축설계드로잉 출품작 58점, 전국대학생 공모전 수상작 23점, 어린이 집그리기대회 수상작 15점 등 다양한 건축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김현아기자

강원도민일보

2022 11 18 ()

06



강원건축문화제가 17일 춘천시청에서 전영석 대한건축사협회 도건축사회 회장, 정종식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 김종석 강원도민일보 회장, 손창환 도건설교통국장, 박기영 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서영

“강원건축문화제, 건축을 하나의 문화로 즐기는 축제의 장”

강원도 건축문화 진흥발전을 위한 ‘2022강원건축문화제’가 17일 춘천시청에서 개최됐다.

대한건축사협회 강원도건축사회(회장 전영석)가 주최하고 강원도건축사회 춘천지역 건축사회가 주관하며 올해 9회째를 맞는 2022강원건축문화제는 ‘강원! 그곳에 가면’을 주제로 마련됐다. 이날 문화제에는 전영석 대한건축사협회 강원도건축사회장, 이형

재 한국건축가협회 강원지회장, 정종식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 김종석 강원도민일보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전영석 대한건축사협회 강원도건축사회장은 개회사에서 “건축을 하나의 문화로써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거듭나도록 민·관·학계가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막식에서는 강원건축문화상 등 시상식이 이뤄졌다.

황선우 woo6745@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2 11 18 ()
20



2022강원임업인 한마음대회가 17일 강원도자연환경연구공원에서 이기찬 강원도의회 부의장, 신영재 홍천군수, 경민현 강원도민일보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홍천서 강원임업인 한마음대회 “산림자원 활용 지역발전 최선”

3만4500명의강원임업인 화합의장이 열렸다. 강원도임업인총연합회(회장 성길용)는 17일 강원도자연환경연구공원에서 이기찬 강원도의회 부의장, 신영재 홍천군수, 박영록 홍천군의장, 김경구 도 산림환경국장, 경민현 강원도민일보 부사장 등 300여명이참석한 가운데 ‘2022 강원임업인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성길용 회장은 “오늘 이 자리는 임업인들이 함께 산을 타는 한걸음이 모였기에 가능했다”며 “강원도 임업발전을 위해 한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강원도는 80% 이상이 산림지역으로 각 시군마다 산림자원을 활용해 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노력해

왔다”며 “성장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산림을 이용해 지역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임업인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시명

2022 11 18 ()
02

강원도민일보

“ESG 가치 공유 폐광지역 신산업 중심지로 도약”

폐광지역 ESG·사회적기업 육성 프로젝트

본지·강원랜드·도민회 주최
우수기업 시상식 5개 기업 수상
기업유치 자치단체 역할 포럼도

출항·재향강원인이 폐광지역의 ESG (친환경·사회적책임·투명 경영)·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해 폐광지역의 미래와 강원도 번영을 위한 의지와 역량을 결집했다. 창간 30주년을 맞은 강원도민일보와 강원랜드, 강원도민회중앙회가 공동주최하고 강원도, 강원도의회, 정선군, 정선군의회, 폐광지역 시·군이 후원한 ‘폐광지역 ESG·사회적기업 육성 프로젝트’가 17일 정선 하이원 팰리스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강원랜드가 함께한 이날 행사에는 주최 측인 정광열 도 경제부지사, 김천수 강원도민회중앙회장, 경민현 강원도민일보 부사장을 비롯 오정훈 강원랜드 상임이사, 이건설 도노인회장, 최승준 정선군수, 전영기 정선군의장, 지역기관·단체장, 경제단체장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

이날 폐광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공헌에 힘쓴 기업을 격려하는 ESG·우수기업 시상식이 열렸다. 대상은 우리주민 (대표 김진복), 우수상은 한국자재산업 (대표 김홍일), 장려상은 그린파워텍 (대표 이태복), 문경미소 (대표 김경란), 특별상은 태백정년기업 컬처랜드협동조합 (대표 손장우)이 각각 수상했다. 대상 500만

원, 우수상 300만원, 장려상·특별상 200만원의 상금이 각각 수여됐다.

강원도와 강원도민회중앙회, 강원랜드, 강원도민일보는 이날 협약을 체결, 폐광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ESG·사회적기업 육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본 행사에 앞서 도내 폐광지역 시·군 관계자들은 ‘ESG 기업환경과 자치단체의 역할’ 포럼에 참석, ESG 경영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한 기업 유치와 지자체 발전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경민현 강원도민일보 부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ESG는 기업과 정부 운영의 새로운 트렌드이자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라고 강조했다. 정광열 경제부지사는 축사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시대에 발 맞춰 폐광지역이 신산업 중심지, 국제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대체 산업을 마련하고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천수 회장은 “ESG 가치를 공유하고 폐광지역의 사회적 기업이 탄탄하게 발전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ESG육성 프로젝트가 폐광지역 기업과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바란다”고 축하했으며 전영기 정선군의장은 “ESG 시상식을 통해 폐광지역 주민과 더불어 사는 기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행사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하이원 하늘길 운탄고도에서 한마음 트레킹을 통해 힐링하는 시간을 갖는다. 유주현

▶ 관련기사 6면



강원도민일보와 강원랜드, 강원도민회중앙회가 공동주최하고 강원도, 강원도의회, 정선군, 정선군의회, 폐광지역 시·군이 후원한 ‘폐광지역 ESG·사회적기업 육성 프로젝트’가 17일 정선 하이원 팰리스호텔에서 개최됐다. 참석자들이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정착을 위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정호

강원도민일보

2022 11 18 ()
06

기업 ESG 경영 지역 운영 접목 방향성 제시

ESG 기업환경·자치단체 역할 심포지엄

폐광지역 소멸위기 직면

자구책 마련 필요성 대두

중·장기적 지원 마련 공감

강원도 폐광지역은 1980~90년대 대한민국의 산업발전을 이끌었으나 사회 변화 속 지역 소멸위기까지 마주하고 있다.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동력 마련이 필요한 시점에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경영에 대한 전 세계적인 제도화 바람에 맞춘 산업 육성으로 자구책 마련에 나설 필요성이 대두됐다.

17일 오후 하이원팰리스호텔 세미나실에서 열린 'ESG 기업환경과 자치단체의 역할' 심포지엄에서 임송택



17일 정선 하이원팰리스호텔 세미나실에서 열린 'ESG 기업환경과 자치단체의 역할 심포지엄'에서 토론자들이 종합토론을 하고 있다. 김정호

ESG코리아 사무총장은 'ESG!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주제발표를 통해 ESG에 대한 의미와 함께 세계적인 흐름과 대기업들의 현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또 에너지전환시대 강원도 폐광

지역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황원규 태백시청 경제복지국장은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대기업을 중심

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나 중소기업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며 "그러나 대기업에 비해 부족한 인력과 자본 등으로 선뜻 나서기 힘든 상황이라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해 ESG 인식 제고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해 중·장기적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강병로 강원도민일보 전략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주제가 생소하게 느껴질 수는 있으나 최근 삼성과 SK도 ESG와 관련해 앞장서며 강조하고 있는 만큼 도내 자치단체와 기업에게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심포지엄이 도내 폐광 지역 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의 ESG 영역을 넓히고, 지역 운영에 접목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정우진

▶심포지엄상보 21일자

江原日報

2022 11 18 ()
24

전임 도정에 대한 ‘무조건 반대’가 불러온 레고랜드 사태

The 초점



류인출
강원도의원

자금시장 위기 여전
추경예산 확보 절박
소통 통해 해결 모색

울 9월28일 강원도의 ‘강원중도개발공사 (GJC)의 기업회생절차 신청’ 발표 이후 채권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신용경색 사태가 발생했다. 채권 값 하락에도 한전 등 우량기업들의 회사채가 유찰되는 등 기업의 자금난이 예상롭지 않다. 이에 정부는 급기야 50조원+α에 대한 자금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위기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강원도는 2,050억원 지급보증에 대해 채무 불이행을 말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현재 경제 혼란은 전적으로 BNK투자증권의 부도 처리가 원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강원도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인가. BNK에 대해 법적 책임이라도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

정부와 전문가들은 강원도가 이번 사태를 예상하지 못했을 거라고 한다. 하지만 강원도가 충분히 신중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일이 크게 벌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도지사가 미안하다며 그냥 넘어가기에는 사안이 너무 크다. 비용은 말할 것도 없다.

김진태 도정은 도민의 혈세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GJC와 어떠한 사전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기업회생 신청을 발표했는데, 10여년 동안 도와 함께 일해 온 파트너로서 GJC는 강원도로부터 비상식인 홀대와 물인정함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이러한 강원도의 태도는 최문순 전 도지사과 정치적 선 긋기요, 흠집을 내고 싶어하는 심리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앞으로 지자체 사업 추진 시 정치논리까지 고려해야 한다면 그 어떤 투자가가 지자체 사업에 참여하겠는가.

또한 강원도의 발표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업체들이 있다. GJC의 업무가 중지됨에 따라 동부건설 및 9개 하청업체는 136억원의 공사대금을 GJC로부터 받지 못하는 억울한 입장이 됐다. GJC는 강원도의 갑작스러운 발표로 사실상 부도 상태다. 현재 남아 있는 잔액 11억원을 갖고 전기세 및 직원 급여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진태 강원도정은 의회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늘 일방적인 모습으로 일관해 왔다. 지난번 조직개편안도, 급변 GJC 기업회생 발표도 의회와의 사전 협의 없이 언론에 발표했다. 김진태 도정에서 민의를 대표하는 의회에 대한 존중과 진정성 있는 자세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번에도 강원도는 2,050억원을 12월15일까지 상환하겠다고 해놓고 절박한 상황이니가 추경예산을 요구했다. 그러고는 의회의 예산 승인에 도지사가 직접 설명과 협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물론 국민의힘 의원이 절대다수여서 무

난히 통과될 것이다. 하지만 강원도는 개인기업이 아니라 보다 높은 공공성과 신뢰성을 우선 고려해야 하는 공공기관이다.

먼저 계약한 투자자와의 신의를 저버리고 계약한 것을 무효화해 자산재평가로 더 많은 처분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기업회생 신청을 한다는 것은 공공성의 기초를 둔 지자체에서 할 일이 아니다.

전임 지사가 한 일에 문제가 있으면 먼저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과실을 따지고 필요한 부분은 법적 절차로 책임을 물으면 될 것이다. 장기계획에 의거한 경제정책을 정치논리에 의해 흔들리게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전임 도정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김진태 도정은 GJC와 소통을 통해 현재 레고랜드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아직 용역대금을 못 받고 있는 동부건설과 9개 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해야 한다.

또한 김진태 도정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공공성을 제1의 원리로 삼고 열린 마음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기를 바라며, 특히 중요 정책 결정 시 보다 신중한 자세로 임해 줄 것을 당부한다.

강원도민일보

2022 11 18 ()
03

국힘 당협위원장 추가공모 오늘 마감 섹법 복잡

차기 총선구도 영향 인선결과 '주목'
'최대 관심' 춘천갑 3명 접수 마쳐

속보=국민의힘당협위원장 추가 공개 모집(본지 11월 10일자 3면)이 18일 마감된다. 도내에선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원주를 당협위원장 추가 공개 모집이 진행 중으로, 당협위원장 인선 결과는 차기 총선구도와 맞물려 있어 심사 결과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최근 전국 사고 당협 66개 지역에 대해 추가로 위원장 후보 공모를 받기로 결정하고,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공모접수를 하고 있다.

춘천·철원·화천·양구갑 당협위원장에는 최성현 전 국민의힘 춘천시장 후보가 18일 공모 접수에 나설 계획이다. 춘천갑 당협위원장에는 노용호(비례) 국회의원, 강대규·김혜란 변호사 등 3명이 지난 5~6월 일찌감치 접수를 마친 상태다.

원주를 당협위원장은 추가공모자가

불확실한 기류다. 당초 도전의사를 밝혔던 최재민 강원도 의원은 "주변의 여러 말씀을 듣고 있다"며 "도의원으로서의 정활동을 하고 있어 이번에 공모를 하는 것이 일부 부담이 된다"고 했다. 원주를 당협엔 권이중 변호사, 전병선 전 원주시의원, 박동수 변호사, 윤용호 대한생활체육회 강원도회장, 장승호 한국 도시발전연구소대표, 안재운 미래교육 아카데미대표 등 6명이 지원했다.

전국 사고 당협지역 인선 결과는 12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도내 당협위원장 인선 결과의 최대 관심은 춘천갑이다. 현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지역 및 신진인사 등이 도전장을 낸 데다 춘천갑 당협위원장은 재선의원을 역임한 김진태 지사의 후임 위원장이 된다. 특히, 차기 총선에서 춘천지역 내 분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춘천갑 총선주자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과의 대결이 불가피한 만큼 도정기관의 특별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설 화 lofi@kado.net

江原日報

2022 11 18 ()
02

강원세계산림엑스포 내년 9월로 또 연기

당초 예정 5월 산불위험 최고
안전사고 우려 등 인해 결정

내년 5월 개최 예정이었던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가 9월로 4개월 가량 연기된다.

강원도와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는 17, 18일 이틀간 엑스포 일정 연기를 안건으로 한 서면 이사회를 진행한다.

산림엑스포는 내년 5월4일부터 6월6일까지 개최 예정이었으나 내년 9월22일부터 10월22일까지로 4개월 정도 연기한다. 매년 5월 산불 위험이 최고조에 달하는 점, 동해안의 고질적인 봄철 강풍으로 인한 각종 안

전사고 우려, 9~10월 단풍철 개최 시 흥행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당초에는 올 5~6월 열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인해 내년 5월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으며 이번이 두 번째 연기다.

전진표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 사무처장은 “9~10월은 산불, 태풍 등이 거의 없는 시기로 실무적인 분석과 함께 강원도의회, 개최 4개 시·군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 연기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

江原日報

2022 11 18 ()
01

속도 붙는 오색케이블카 ... 1년 앞당기나

김 지사, 윤 대통령에 연내 환경협의 요청 ... 총리실 현장 점검
道·양양군 이르면 내주 보완서 제출 2026년 조기 완공 기대

속보=오색케이블카 사업(본보
지난 1일자 4면 보도)에 가속도가 붙
고 있다.

국무총리실이 최근 사업 현장 등
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강원
도와 양양군은 이르면 다음 주, 늦어
도 이달 마지막주에는 원주지방환경
청에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제출하
기로 했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환경
영향평가 보완서 제출을 앞두고 17
일 최종 점검회의를 가졌다.

도와 양양군은 보완서 내용 전반
은 물론 향후 예상되는 환경단체와
의 법정 공방에 대한 대응 논리에 대
해서도 전방위적인 준비를 진행 중
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주 국무총리실
의 실무진들이 양양 오색케이블카
사업 현장과 원주지방환경청 등을
찾아 사업 전반을 점검했다.

국무총리실의 현장 방문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
회의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색케이블카 연내 환경협의
의 마무리 요청을 하자 윤 대통령이 국
무총리에게 오색케이블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할 것을 지시했던 것이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강원도와

양양군, 원주지방환경청은 올 6월 오
색케이블카의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이행방안과 범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해 온 만큼 7년 만의 환경협의 완
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양양 오색케이블카는 2015년
연말 환경영향평가가 시작된 이후 지
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협의를 연내 또는 내년 초 마무
리될 경우 사업 착공 및 운영 시기도
예정보다 1년 이상 앞당겨질 수 있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당초 2025년
착공, 2027년 운영을 목표로 해 왔으
나 2026년 이전 운영 개시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이후에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백두대간개발행위
사전 협의, 국유림 사용 허가 등 11
개 행정 절차가 남아 있지만 정부와
강원도의 강한 추진 의지 등을 고려
하면 수월하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
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환경협의 완
료 후 환경단체의 소송 제기 가능성
은 배제할 수 없다.

강원도 관계자는 “이달 말쯤 보완
서를 환경청에 제출할 계획이지만
앞당겨질 수도 있다. 보완서를 마지
막으로 정리, 점검하는 단계”라고 말
했다.

최기영기자 answer07@

江原日報

2022 11 18 ()
02

서면대교 건설 놓고 道-춘천시 불협화음

속보=춘천지역 현안사업인 ‘서면대교’ 건설(본보 17일자 2면 보도)을 두고 강원도와 춘천시 간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내년 실시설계비 50억원 반영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춘천시는 내년부터 지방비를 일부 보태서라도 신속한 추진에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 강원도는 국가계획 반영이 먼저라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쟁점은 예산 확보와 개통 시기다. 춘천시는 ‘조기 개통’에 방점을 찍고 있다. 지난해 3월 정부가 확정된 제5차 국도·국가지원지방도 구축사업에 지방도였던 서면대교 건설이 포함되지 못하면서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춘천시는 2025년 개

내년 실시설계 국비 50억 반영 사실상 확정
시 “지방비 보태서라도 2025년 조기 개통”
도 “2026년 국가계획 반영 예산 부담 줄어”

통을 목적으로 지방비라도 투입해 건설하자는 입장이다.

때마침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실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 소위원회회를 통해 내년 서면대교 건설비용 50억원을 확보했다. 춘천시는 이를 명분으로 내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추진 시 약 200억원의 국비 추가 확보가 가능하고 강원도와 춘천시가 최대 1,000억원의 사업비를 마련해 조기 착공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1,000억원의 사업비를 누가, 어떻게 부담

하느냐가 쟁점이 될 수 있다.

강원도는 ‘예산 확보’ 방식을 달리 하자고 밝히고 있다.

현재 춘천시의 사업 방식대로 진행할 경우 1,000억원의 예산이 들지만, 2026년부터 적용되는 제6차 국도·국가지원지방도 구축사업에 반영시킬 경우 국비 확보가 가능해 지방비 부담은 300억원대로 크게 떨어진다.

더욱이 비용 부담을 두고 강원도와 춘천시가 각각 절반인 500억원씩 부담하느냐, 강원도 700억원, 춘천시 300억원으로 하느냐를 두고 도와

춘천시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기다렸다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밟자는 것이 강원도의 입장이다. 그러나 국가계획이 2026년부터 적용되는 만큼 개통 시기는 2030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에 대해 춘천시 관계자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추진 시 조속한 개통이 가능하다”면서도 “강원도의 계획에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이견을 좁히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국가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은 향후 추진에 여러 어려움이 있어 6차 국가계획 반영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라며 “춘천시 등과 국비 확보 방안을 계속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영기자

江原日報

2022 11 18 ()
03

국토위 증액 '강원 SOC 예산' 여야 갈등 속 본회의 통과 사활

춘천~속초 동서고속철 비로
주요 7개 사업 예산소위 의결
광덕터널도로 건설 신규 반영

속보=강원도 교통망 확충을 위
한 국토교통부 예산이 국회 국토교
통위원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
(본보 17일자 3면 보도)되지만 여야
갈등으로 파행되면서 도와 시·군은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됐다.

국토위 예산결산소위원회는 지난
16일 강원도가 요청했던 증액 사업
의 대부분을 반영한 예산안을 의결
했다. 소위 의결안에 따르면 △춘천~
속초 동서고속철도(400억원) △강릉
~고성 제진 철도(560억원) △포천~
철원 고속도로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비(2억5,000만원) △속초~고성 고속
도로 사전타당성 조사용역비(2억5,
000만원) △춘천 서면대교 건설 (50
억 신규 반영) △국지도 86호선(동막
~개야) 도로(5억원) △양양국제공항
인바운드 시범공항 조성(100억원)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행정안전위
원회도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광덕
터널 도로 건설' 7억원을 신규 반영
한 상태다.

강원도가 지난 10일 강원도국회
의원협의회의와 '국비확보 대책 간담
회'에서 요청했던 주요 7개 사업은
당초 목표한 규모에는 미치지 못하

◇강원지역 교통 분야 국토위 예산결산소위 증액 규모				(단위:억원)
사업명	총 사업비	2023정부안	증액 요청	반영 규모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24,378	2,068	932	400
강릉~제진 철도	27,406	2,828	672	560
포천~철원 고속도로	19,433	·	5	2.5
속초~고성 고속도로	20,711	·	5	2.5
광덕터널 도로 건설	1,632	·	7	7
춘천 서면대교 건설	998	·	50	50
국지도 86호선(동막~개야) 도로	607	2	48	5

지만 대부분 상임위원회 예산소위
의결안에 포함된 것이다.

특히 2027년 개통을 목표로 한 춘
천~속초 동서고속철도는 내년도 정
부예산안에 포함된 2,068억원에 400
억원이 증액되면서 총 2,468억원으
로 오른 상태다.

여기에 동해북부선의 마지막 퍼즐
구간인 강릉에서 고성 제진까지 잇
는 철도 건설 예산은 국토위에서
560억원이 증액 반영되면서 3,388억
원으로 수정됐다. 동해북부선은 강
릉~주문진~양양~속초~간성~제진
간 111.7km를 연결한다. 고속열차
KTX-이음이 투입돼 강릉역에서 제
진역까지 1시간 만에 주파가 가능해
진다. 또 총 사업비 998억원이 필요
한 춘천 서면대교 건설과 관련해선
50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여야 의원
들의 협력으로 가능했다.

국토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허영
(춘천갑) 국회의원은 "서면대교가
건설되면 춘천 도심과 서면이 5분 내
연결이 가능해진다"며 기대했다.

앞서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

원-화천-양구을) 국회의원도 '서면
대교 건설'을 최대 현안으로 꼽으며
서 예산 확보에 앞장서 왔다.

도내 각종 도로 건설과 관련된 비
용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춘천~철
원 고속도로 설계비용(2억5,000만
원) △홍천~화촌 군업~장평 일반국
도 건설 설계비용(2억원) △포천 이
동~철원 서면 국도 건설(3억3,400만
원) △안흥~방림 국도 건설 61억8,
000만원이다. 국토위 소속인 국민의
힘 박정하(원주갑) 국회의원의 요청
으로 원주시 외곽을 연결하는 흥업~
지정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 연구용
역비 1억원도 신규 반영됐다.

이처럼 강원도 현안 예산들은 상
임위원회별 소위 예산안에는 포함됐
으나 행안위·국토위가 잇따라 파행
되면서 전체회의에선 의결되지 못한
상태다. 강원도 관계자는 "강원도가
증액 요청한 사업은 대부분 상임위
원회 예산안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
되지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는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이하늘기자 2sky@kwnews.co.kr

江原日報

2022 11 18 ()
03

“2024강원청소년올림픽 개·폐회식 평창서 열려야”

유상범 의원 문체부 차관 면담
“올림픽 유산” 강조하며 재촉구

속보=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사진) 국회의원이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개·폐회식을 평창에서 개최(본보 지난 10일자 3면 보도)할 것을 또다시 촉구하고 나섰다.

조직위원회와 IOC는 이달 말께 개·폐회식 장소를 최종 확정할 것으



있다.

이에 유상범 의원은 지난 9일 올림픽조직위원회 김철민 사무총장을 만난 데 이어 17일 오후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를 만나 설득 작업에 나섰

로 알려진 가운데 평창·강릉 공동 개최로 하되, 평창은 이원생중계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안도 거론되고

다. 유 의원은 이날 의원실에서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부위원장인 조용만 문체부 제2차관과 면담을 가졌다.

그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유치, 홍보, 개최 등 모든 과정에서 평창군민 대다수가 발 벗고 거리로 나선 열정과 헌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올림픽 유산은 앞으로도 꾸준히 계승, 발전돼야 할 국가적인 자산이므로 개·폐회식도 당연히 평창에서 열려 평창군이 브랜드 연속성과 역사성을 가져갈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조용만 차관은 “평창군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개·폐회식 장소 결정이 군민 여러분에게 실망감을 드리지 않도록 문체부 차원에서 여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이하늘기자 2sky@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2 11 18 ()
03

유상범 “동계청소년올림픽 개폐회식 평창 개최” 촉구

유상범 (홍천·횡성·영월·평창·사진) 국민의힘 강원도당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부에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개폐회식의 평창 개최를 주장하고 나섰다.



유 위원장은 17일 국회 유상범 의원실에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인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면담을 가졌다.

유 위원장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평창군민 대다수가 발벗고 거리로 나선 열정과 헌신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림픽 유산은 앞으로도 꾸준히 계승, 발전되어야 할 국가적

인 자산이므로, 개폐회식도 당연히 평창에서 열려 우리 군이 브랜드 연속성과 역사성을 가져갈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조 차관은 “평창군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강원도청과 협력, 문체부 차원에서 여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설화

江原日報

2022 11 18 ()
/ 25

반도체 기업 투자 유치 성공, 치밀한 전략에 달려

강원도가 반도체 기업 유치에 팔을 걷었다.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중인 도가 국내 유망 100개 반도체 기업을 직접 접촉하며 본격적인 기업 유치에 나섰다. 도가 이달 내 국내 100개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의향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다. 기업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니즈를 먼저 파악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도는 앞서 유치 국내 400여개 반도체 기업에 대한 리스트업을 진행했고 이 중 성장세를 보이거나 매출·고용 규모가 큰 유망기업 100

곳을 추렸다. 팸리스(반도체 설계), 소부장(부품·소재·장비) 등 전·후방기업을 다양하게 리스트에 올려놨다. 이들 기업에 우편과 메일 등을 보내 향후 이전 가능성,

신·증설을 비롯한 추가 투자 의향은 물론 행정 지원 필요성, 업계의 건의사항 등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원도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도체 기업 투자 유치는 균형 있는 도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기대를 갖게 한다. 지역경제 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되기 때문이다. 크게는 지역경제 전체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고, 수도권 중심의 편향된 경제의 종속적 관계에서 탈피할 수 있다. 따라서 도의 반도체 기업 유치의 취지나 동기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도가 계획하고 있는 반도체 기업 유치는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 특히 설문을 통해 투자 의사가 확인된 기업은 도의 유치 1순위 기업으로 선

정, 각종 지원책을 강구기로 한 것도 바람직하다. 도는 2026년까지 국내 최초 공공부문 공유형 반도체 교육기관인 원주 반도체 교육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센터에 제조공정, 시험분석 장비를 구축해 도내 고교와 대학, 기업 등이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전문 인력 양성과 기업 유치 및 지원 투 트랙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육성에 속도를 내고 궁극적으로는 삼성 등 대기업 유치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노리고 있다.

문제는 민간의 순발력으로 시장의 다양한 요구와 반응에 대응해 나가야 하는 것이 반도체 사업이다. 갈수록 운영상의 전문성이 중요해지는 분야다. 웬만한 의욕과 계획만으로 사업에 뛰어들었다가는 큰 낭패

강원도, 국내 유망 100개 직접 접촉

기업들 니즈 제대로 파악, 적극 반영해야

웬만한 계획과 의욕으로 뛰어들면 ‘큰 낭패’

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반도체 기업 유치 사업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후속대책이 치밀하게 세워지지 않는다면 자원만 낭비하고 주민들의 기대 수준을 높여 놓은 상태에서 부담만 지우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리고 민간 기업 유치는 치명적 약점이 있다. 수익성이 불투명할 경우 사업은 언제든 중단될 수 있다. 때문에 민간 기업 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방안이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더군다나 수익 창출을 전제하는 민간 기업은 자치단체가 원한다고 모든 사업에 순순히 응할 턱이 없다. 도가 반도체 기업 유치에 행정력을 총동원할 수 있으나 보다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강원도민일보

2022 11 18 ()
/ 19

겨울철 화재주의보 사전점검 철저해야

-발생건수와 사망률 2배 치솟아 소방본부 예방 전력하길

11월 16일 화천에서는 내부공사 중이던 문화예술회관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공사 현장 건너편 대공연장에서 발표회를 준비 중이던 학생과 학부모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공사담당자들이 자체 진화에 나섰고 소방서에서 긴급 출동해 천장 우레탄폼 일부만 태우고 1시간여만에 진화됐지만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2018년부터 강원도내 화재 건수는 줄고 있지만, 11월부터 5월까지의 늘었습니다. 도내 화재 건수 중 61%가 겨울철과 봄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월별 평균 화재 발생 건수를 보면 9월은 511건으로 최저인 데 반해 11월은 760건으로 늘었고 12월과 1월은 각각 1013건, 1047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이 기간에 화재로 인한 사상자 비율은 더 높아져 63%가 발생했습니다.

날씨가 추울수록 화기를 쓰고 전기 제품을 사용하는 일이 잦습니다. 다른 계절에 비해 환기가 쉽지 않은 겨울철에는 실내공사 및 지하공간에서의 작업과정에서 화재가 일어날 경우 크게 번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작업과정에서 전기적 요인 및 불꽃이 튀면서 화재에 취약한 자재에 쉽게 옮겨붙

고 유독가스를 분출하며 수분 이내에 생명을 위협합니다.

화재 원인은 담배꽂초와 불씨관리, 쓰레기 태우기와 같은 개인 화재 부주의가 가장 크지만 전기 및 기계적 문제 요인이 적지 않아 평소 점검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화재에 약한 자재를 쓴 건축물일수록 사전 예방에 민감해야 합니다. 시설물 내 화재위험요인은 없애고 즉시 진화할 수 있는 소화기 등을 갖추고, 비상탈출로를 제대로 확보하도록 일상적인 점검이 이뤄져야 합니다.

화재 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주거지보다 비주거지가 더 많아 29%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이 야외와 도로로 25%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내는 관광 목적 차량 이동이 잦은 만큼 특화된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산간에 인접한 주택은 막대한 재산 피해를 부르는 산불로 번지기 쉬우므로 스프링클러 장비는 취약층과 산림 인접지 주택 중심으로 충분히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 강원도 소방본부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를 겨울철 대형화재 예방 안전대책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7대 전략 27개 중점과제를 선정한 만큼 정책이 일선 현장까지 제대로 적용되도록 살펴야 합니다.

강원도민일보

2022 11 18 ()
/ 19

고독사 막을 안전망 구축할 때

-무연고 사망자 증가, 1인가구 증가 따른 대책도

연고 없이 홀로 살다 세상을 떠난 사망자 수가 강원도내에서만 한 해 100여 명 가까이 발생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이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나 노인들의 쓸쓸한 죽음에 대한 지자체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됩니다. 또한 고독사는 1인가구 증가에 따라 노인뿐 아니라 연령층과 관계없이 일어나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3년 동안 강원 도내에 가족이나 신분, 직업 등을 알 수 없어 신원이 불분명한 무연고자 사망자 수는 264명으로 한 해 평균 8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지난해 무연고자 사망자 수는 115명으로 1년 새 63.4%나 급증했습니다. 사망자 대다수는 돌봐줄 가족이 없는 60세 이상의 고령층이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무연고 사망자 중 54.7%인 63명이 60세 이상이었으며 70세 이상의 고령은 전체 사망자의 37.3%를 차지했습니다. 3년간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48.4%에 달했습니다. 지자체들은 무연고자 관련 조례와 법령에 따라 장례를 지원하고 있지만 결국 이들은 결국 또다시 홀로 납골당에 남겨지는 등 가족이 없어 쓸쓸하게 안치되고 있습니다.

무연고자의 경우 정부가 매년 통계 수치를 발표하고 있지만 1인가구 고독사는 별도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가족이 없고 혼자 거주하는 경우 사망 후 일정 시간이 흐른 뒤 발견돼야 고독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핵가족을 지나 1인가구 추세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독사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령층뿐만 아니라 홀로 생활하는 청장년층의 고독사도 사회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외부와 단절된 환경에서 거주해 확인이 쉽지 않습니다.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관리하기 힘들다고 두고만 볼 일은 아닙니다. 주거 등 생활 환경의 변화에 맞춘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현재 정부의 관리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 독거노인을 포함해, 연령과 소득 수준을 초월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고독사한 사람들의 숫자와 정황 등을 사례별로 분석하는 한편, 위험 징후가 감지될 경우 관리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고령층을 비롯한 1인가구 데이터를 구축하고, 사적·공적 관계망 강화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江原日報

2022 11 18 ()
/ 25

여행지 만족도 3위, 강원관광 경쟁력 이대론 안 돼

올해 여름휴가 여행지 만족도 조사에서 강원도가 4년 만에 3위로 밀려났다. 부족한 쇼핑 콘텐츠, 높은 물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데이터융복합·소비자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츠의 ‘여름휴가 여행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여름 휴가 기간 도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만족도는 1,000점 만점에 731점, 전국 17개 시·도 중 3위였다. 1위는 757점의 제주, 2위는 732점의 부산이 차지했다. 도는 4년 만에 부산에 2위 자리를 내줬다. 도는 ‘여행자원 매력’ 측면에서 살 거리(쇼핑) 항목이 매우 취약했다는 평가다. ‘여행환경 쾌적도’에서도 물가·상도의, 청결·위생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관광자원 자체의 경쟁력이 뛰어나도 이 같은 문제들은 ‘다시 찾고 싶은 강원도’에 심각한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휴가지 운영은 사업이고 경영이다. 피서객의 눈높이에 맞는 상품 개발 등 경영마인드로 접근해야 한다. 21세기 피서객에게 천혜의 관광자원만으로 어필하기는 힘들다. 자연·문화·지리적 자원이 연계된 특화상품이 필요한 이유다. 지금은 피서객의 양적 규모보다 얼마나 고소비를 하는 피서객을 유치했느냐가 더 중요하다. 숙박, 쇼핑, 체험 등 소비활동을 유도하는 전략을 가다듬어야 도내 여행지의 내일도 밝다.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 강원도가 되기 위해서는 관광자원을 잘 다듬고 명소화하는 것만 아니라 다채로운 매력을 가진 휴가지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 특히 불친절·바가지요금 없는 ‘청정 국민관광지’를 떠올릴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치단체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스스로 주인의식을 발휘할 때 비로소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관광자원을 갖고 있다고 해도 주변 환경이 청결하지 못하고, 불친절과 바가지 상환이 난무한다면 아무도 다시 방문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여름철에 산과 바다만 찾는 시대는 지났다. 강원도가 유명세만 믿고 손을 놓고 있다가는 오히려 외면받는 곳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볼거리, 즐길 거리가 많은 곳에 찾는 이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국내는 돈만 많이 들고 서비스가 형편없다며 동남아를 선택하는 여행객이 증가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다. 축제나 콘서트 위주 등의 이벤트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다양한 콘텐츠를 갖출 수 있도록 이제라도 강원도의 피서지 관광이 나아갈 방향을 새롭게 짜야 한다. 그래야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지자체 등에서도 지역 상인들과 힘을 모아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